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규과제 소개

수시 과제

01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기초생활 인프라’의 개념이 도입됐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일정 가구 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던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해 비공동주택 주거지 내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후한 주거지 정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개발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한정된 공공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도모해 왔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전면철거, 재개발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대됐다. 또한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공간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투입재정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 인프라의 질과 양의 확대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예정) 구역의 해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한 주거지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수시 과제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성은영
수탁 과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지원방안 연구	차주영

의 재생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활 인프라’의 공급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기획됐다. 최근 해제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를 통해 기대되던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과 현 노후주거지의 공급 격차를 도출해 노후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의 확충 목표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은영

수탁 과제

01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지원방안 연구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지원방안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연구로, 2013년 10월에 착수해 2014년 2월 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사업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정립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및 도시 관련 공공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디자인관리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전문가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건축 및 도시와 관련한 행정적인 부문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공공사업에서 주민참여 시 또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체계 부분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사업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사업 추진 시 민간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사업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조직 구축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주민-민간-전문가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건축 및 도시 분야 사업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통해 공공지원사업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차주영

포럼 및 세미나

한옥포럼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3차 한옥포럼(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한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3차 한옥포럼'이 2013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행사와 연계해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열렸다.

한옥포럼은 올해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한옥자산과 관련해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지민 교수(목포대학교 건축학과)의 '한옥의 사회적 역할 및 보전·활용방안'을 시작으로 로버트 파우저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도시형 한옥 거주자 이야기', 심경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한옥 보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옥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옥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옥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연구와 실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우저 교수는 서촌의 한옥에서 거주하기 위해 집을 대수선하고 살아가며 느낀 생각과 실제 경험들을 발표했다. 또 한옥정책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옥밀집지역에 편중된 지원제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관의 문제,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건축법」,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개발과 지원정책에 대한 사항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끝으로 심 부연구위원은 멸실 위기에 있던 한옥의 보존을 위해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과 법적인 지원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일 교수(목포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김태식 사무관(전라남도 청 행복마을과), 김현숙 교수(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봉수 소장(삼진건축사사무소)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3년의 마지막 포럼은 12월 20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한옥교육에 대해 논의됐으며, '제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AURI 건축도시포럼

2013 제3회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공동으로 2013년 11월 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13 제3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이라는 취지 아래 ‘마을단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제해성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박민우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은 박승기 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과거 난개발로 이루어진 대다수 도시의 거주민을 위해 도시 재정비 정책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기반의 장소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서 마을단위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황희연 교수(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는 ‘도시계획, 마을중심으로의 변화’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설계가 점차 광역단위에서 마을 차원로의 구체화되는 과정과 더불어 마을단위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황 교수는 청주시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앞으로 마을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강조하며, 행정·전문가·주민 사이에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양재섭 연구위원(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 실태와 자치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마을단위계획의 추진동향을 설명했으며, 광

역시(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 사례를 들어 시와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서울시 주도형 마을만들기(휴먼타운, 강북구 진달래마을 경관협정), 자치구 주도형 마을만들기(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성북구 마을만들기)를 소개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근호 센터장(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은 ‘마을단위 계획과 실제-수원시 사례’라는 주제로 수원시 주요 재생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선보이며, 마을단위 재생 지역 전문가로서의 고충과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37개 동이 참여하는 ‘마을계획



단' 조직 경험을 소개하며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함양시키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성은영 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새로운 마을단위계획의 수단, 건축협정'이라는 주제로, 주민 주도형 주거지 재생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건축협정제도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성 연구원은 건축협정제도도 재개발이 어려운 정비구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 오랜 기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부회장(한국도시설계학회)을 좌장으로 해 김경배 교수(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박승기 과장(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서수정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성태 과장(서울시 주거환경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지역 기반의 마을단위 도시재생의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5. 시행일)」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 경쟁력 제고,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지식강연회

20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식강연회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과 소통해 연구진의 연구 정책기여도를 높이고 지식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AURI 지식강연회를 열어 왔다.

2011년에는 건축 및 도시 관련 인접 분야의 저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고, 2012년에는 설계자를 초청해 사회적 이슈가 된 건축물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공감하고 현대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3년 지식강연회는 연구진의 정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연구성과의 정책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정부부처, 유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연구자 등을 섭외해 정책연구 때 이해가 필요한 법령 제·개정, 예산책정 및 집행, 행정조직, 통계,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연구소 수행과제와 연계가 필요한 복지·육아·협동조합 등을 강연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지식강연회는 4월 16일 '법령 체계와 입법 절차'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가 강연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1일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정윤수 교수의 '새 정부 국정운영과 정출연의 역할' 강

연, 8월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의 '복지관련 정책 및 관련제도의 이해' 강연 등이 계속됐다. 이는 여름호 'auri 소식란'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9월 10일에는 '재정 관련 법률 및 예·결산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전용수 예산분석관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은 제정 관련 법률의 소개로 시작해 재정 체계, 재정 규모, 예·결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특히 연구진이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회 제출과정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5차 지식강연회에서는 통계개발원 김혜련 사무관이 '국가통계 체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가통계제도, 통계조사체계 및 주요 통계와 통계자료 이용방법에 대한 강연이었다.

이날 강연에서 나온 국가통계포털 KOSIS와 원하는 분야의 통계를 직접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MDSS는 연구진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를 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단신

MOU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강릉시 MOU 체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제해성)는 2013년 9월 30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2018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강릉시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건축도시공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강릉시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통합

계획의 수립 ▲공공건축 조성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관련 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강릉시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제해성)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2013년 11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동연구 수행, 정보공유 등의 학술·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MOU를 통해 연구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간복지의 논의와 정책 개발의 확장·심화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류 ▲공동 캠페인,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시행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워크숍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계획 부문 워크숍 개최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계획 부문 워크숍이 9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렸다.





공모전은 계획·건축·사진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계획 부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옥 설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발제자로는 학계 관계자와 실무진, 학생 등이 참여해 한옥의 계획·구조·경관·수상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공모전 운영위원장인 박경립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워크숍은 발제자 및 참가자들 모두에게 뜻 깊은 지식 공유의 장이 됐다”고 이번 워크숍의 의미를 설명했다.

토론회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토론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토론회를 2013년 10월 30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그간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을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의력·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으며,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

본 토론회는 관련 지자체, 학계, 전문가 집단,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장이 됐으며,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모

2013 AURI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한 ‘2013 AURI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이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렸다. ‘건축설계산업 법령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접수한 본 공모전의 시상식은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5편) 등을 시상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기조발제를 통해 건축설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당선작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현재 건축설계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한 첫 정책 제안 공모전으로, 앞으로 건축 및 도시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정책적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자리가 됐다.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대행 실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영주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발주한 영주시 노인종합 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대한 대행업 무를 수행해 당선작 1개(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와 우수작 2개(EMA건축사 사무소, 에이오와이건축사사무소)를 선정 했다.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 모는 ‘설계공모 시행에 따른 발주처의 업 무 부담을 줄이면서 설계자 선정에서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 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45세 이하 건축사 대상(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제출도서의 간소화, 심사위원 사전공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 이번 설계공모는 9월 6일 공고가 나간 후 71곳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응모했으며, 44 곳에서 최종 응모도서를 제출했다.

이후 10월 27일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

개의 응모도서에 대해 11월 1일 2차 공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해 11월 5일 영 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auri 홈페이지 리뉴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 10월 16일 국문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 RWD)으로 구현한 새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의 특성상 PC, 태블릿과 모바일 의 다양한 환경에서 유동적인 비율로 구성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떠한 기기에서 홈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용탐색이 쉽다.

메인 화면을 블록으로 분할하여 연구성과 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어지러운 팝업 창 대신 롤링배너를 활용해 다양한 행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화면은 페이지 구성의 통일 및 디자인 요소로 아이콘을 곳 곳에 활용했고, 연구소 로고의 색과 동일 한 붉은색을 포인트로 화색과 파란색이 적 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메뉴를 재구성해 전체 메뉴를 홈페이지 하 단에 상시 배치하고, 신규 메뉴로 연구소 의 중점사업을 소개하는 ‘연구사업 안내’ 와 정규 연구직을 소개하는 ‘auri 리더’를

추가했다. 또한 그동안 연구소 홈페이지에 서는 서비스되지 않던 발간물들을 업로드 해 ‘auri 발간물’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auri 소개’의 ‘홍보관’ 메뉴에는 올해 처음 제작한 연구 소 홍보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 연동하는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찾는 건축도시 분야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자료공유 가 쉽도록 페이지별로 페이지북 연동이 가 능하게 했고, 키워드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11월 7일에는 영문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으며, 기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www.auri.re.kr



auri 동영상

